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명품관 리뉴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이 명품관을 리뉴얼 오픈했다. 지하1층부터 1층까지 2개 층, 총 영업 면적 1만1841㎡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마르니와 막스마라, 필립플레인, 분더샵 슈 등 26개의 신규 브랜드를 선보였다. 또 지하 1층 와인하우스 내 와인바를 구성해 차별화를 꾀했다. 지하 명품관 한가운데에 천장을 뚫어 층고를 높인 '보이드'라는 새 공간을 선보였다.



14일, 취임 1년 맞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로봇·UAM·자율주행... “인류의 꿈 함께 실현”

(도심항공모빌리티)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 위한 소명”
로보틱스·UAM 등 신사업 가속화
9월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 공개
2023년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탄소중립 등 수소사회 비전 입체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로보틱스,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등 신사업에 속도를 내왔다. 특히 수소 사업 확대와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도 공을 들였다.

정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인류의 삶과 행복, 진보와 발전에 대한 기여가 기업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그의 평소 지론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게 그룹 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올해 초 새해메시지에서도 “그룹 임직원 모두가 변함없이 지켜야 할 사명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인류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기술은 인간을 위한 수단”

로보틱스, UAM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시켜 인류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정 회장의 구상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민첩한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 회장은 취임 후 첫 대규모 인수합병(M&A) 분야로 로보틱스를 선택했다. 지난해 12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하고, 올해 6월 M&A를 완료했다. 그룹 내 조직인 로보틱스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 회장은 “인류의 삶과 행복, 진보와 발전에 대한 기여가 기업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강조해 왔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그룹

랩도 웨어러블 로봇, 인공지능(AI) 서비스 로봇, 로보틱 모빌리티 등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동공간을 하늘로 확장하는 UAM 대중화 기반도 다지고 있다. UAM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향점인 안전하고 자유로

운 이동이라는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축이다. 2028년 도심 운영에 최적화된 완전 전동화 UAM 모델, 2030년대에는 인접한 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지역 항공 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인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9월 독일 뮌헨 IAA 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과 공동 개발한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를 공개했다. 모셔널은 글로벌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와 협력해 2023년 아이오닉5 로보택시를 활용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 기후변화위기 극복 위한 강력 의지

지난달 현대자동차그룹이 개최한 하이드론젠 웨비 행사는 정 회장이 그리고 있는 미래 수소사회 비전을 입체화한 자리라고 평가받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 자리에서 2040년을 수소에너지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수소비전 2040’과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기술, 수소모빌리티 등 청사진을 공개했다.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무인 장거리 운송 시스템 콘셉트 모빌리티 ‘트레일러 드론’과 100kW급·200kW급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시제품도 공개했다.

정 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은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수소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기후변화 이슈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화두를 제시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글로벌 공감대 확산에도 적극적이다. 올해 국내 기업들의 수소 사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수소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CEO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출범을 주도했다. 해외에서도 ‘수소위원회’ 공동회장 등을 맡아 수소의 글로벌 의제화에 기여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내달 15일부터 싱가포르 여행 격리면제 백신 접종 한국인 대상...개인여행도 가능

사이판에 이어 싱가포르도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백신접종 여행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한다. 이번에는 단체 외에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개인여행객도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8일 한국과 싱가포르의 항공 주무 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 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없이 여행할 수 있다. 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및 관광 목적 모두 허용된다.

양국은 상호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 혜택을 받는다.

11월 15일 이후 격리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 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프롬바이오, 탈모 방지·발모 촉진용 물질 특허 등록

건강기능식품 기업 프롬바이오는 최근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용 화합물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다. 이번 특허에는 프롬바이오의 개별인정형 원료인 매스틱검이 활용됐다. 프롬바이오는 매스틱검이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를 기반으로 PCT 국제 출원도 마쳤고 2022년 초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프롬바이오는 9월 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하반기 내에 다른 조성물과 복합원료에 관한 추가적인 특허 등록을 예정하고 있다.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정밀함이 중요한 질세라 시술 산부인과 전문의 통해 진행해야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를 겪는다. 그중 하나가 질 부위에 나타나는 변화다. 임신, 출산에 의해 질 내벽이 넓어지고 탄력을 잃고 노화가 진행된다. 여성호르몬 분비도 감소되어 질벽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골반근육도 기능이 떨어져 위축성 질염이나 요실금 같은 불편함을 호소하게 된다.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진 질벽은 자연 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치료와 시술을 통해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를 질 타이팅 시술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질세라 시술이 대표적이다.

질세라 시술은 고강도 집중 초음파 에너지(HIFU)를 질내벽을 따라 열에너지를 조사하는 치료다. 열에너지가 결합조직 내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층까지 열이 전달되어 골반 근육을 감싸는 근막에 영향을 주어 수축시킨다.

열 응고점이라는 접촉점이 형성되어 열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곳을 타깃으로 타이팅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술 효과는 시술일 이후부터 6~9개월까지 지속된다. 1년에 한두 번 시술을 하면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

초음파를 이용해 통증이 없고 시술시간도 20분 정도로 짧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질 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직장이나 욕아 등으로 임원수술이 불가한 경우라면 시술을 먼저 고려해 보길 권한다.

질세라 시술은 시술자의 경험과 시술 방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풍부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강남근초리한산부인과 김윤희 원장

구글·삼성, 매출 올린 해외 국가서 ‘디지털세’ 낸다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최종 확정
2023년부터 시행...삼성전자 해당
국내에는 이중과세방지조로 부담 적을 듯

2023년부터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IT)을 겨냥해 일명 ‘구글세’로도 불린 ‘디지털세’가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그동안 안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국내 기업들도 매출을 올린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 136개국 합의안 지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안은 IF 140개 국 가운데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합의안은 다음 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된 뒤,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합의안을 보면 먼저 연결매출 200억 유로(27조 원), 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매출을 낸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매출 236조8070억 원, 영업이익 35조 9939억 원을 기록했다. 통상이익의 10%(약 23조6870억 원)를 초과한 이익은 12조3132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의 25%인 3조783억 원에 대한 과세권이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배분되는 것이다.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도 도입된다. 대상은 연결매출이 7억5000만 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세율이 10%인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

다.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재계, “과세 부담 크지 않을 듯”

국제사회가 최종 합의를 이뤄내면서 재계도 디지털세와 관련한 본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시행이 2023년으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과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내던 일부 법인세를 해외 국가에 내는 것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분석이다.

세금을 내야 할 국가는 늘어나지만, 납부할 전체 세금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 얘기다. 우리 정부는 기업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에 낸 세금만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해 줄 방침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합의안을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국가에 세금을 내야해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선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디지털세 내용	
과세권 배분	대상 ▶ 연결매출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
내용	▶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매출 발생국에 납부
최저한세율 도입	대상 ▶ 연결매출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내용	▶ 최저한세율 15% 적용

매출 1조 원 이상의 수출 기업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면서도 “적용대상이 당초 IT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 우리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우려된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수출기업이 디지털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